

아리스토텔레스의 덕론에 기초한 가정교육에서의 실천 개념 고찰을 위한 시론 (I)
-실천적 지혜(phronesis)와 다른 덕과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유태명*

경상대학교 가정교육과 · 경상대학교 교육연구원 책임연구원 *

Clarifying the concept of praxis in Family and Consumer
Science Education

-In focusing of the concept of phronesis in Aristotle's
Nicomachean Ethics-

Taemyung Yoo*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pproached the concept of practical or praxis in Family and Consumer Science based on the review of the concept of phronesis in Aristotle's *Nicomachean Ethics*. Aristotle divided human soul into rational part and irrational part. A virtue related with rational part is intellectual virtue and a virtue related with irrational part is moral virtue. Rational part is divided into calculative part and scientific part. Phronesis is one of an intellectual virtue in calculative part of soul. Aristotle defines phronesis as a state of soul that issues in praxis. Phronesis in narrow sense is a virtue which leads to praxis and it is differ from either sophia or techne. Phronesis in broad sense it includes both praxis and poiesis. Phronesis is closely related with moral virtue. Because moral virtues are habits according to right reason, hence right reasons should be considered, and this is intellectual virtue. It is called for attention that what the concept of practical or praxis in Family and Consumer Science Education should be for the determination of the relation with Practical Arts and Technology. This study proposed a tentative conceptualization of praxis and phronimos in context of Family and Consumer Science Education. clothing planning and the most categories(83.3%) had connections of repetitions. In the clothing material section, categories evaluated as gaps and developments were 55.6% and 44.4%. The clothing construction

1) 교신저자 : 유태명(taemyungyoo@hanmail.net)

주제어(Key Words) :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 실천(praxis), 실천적 지혜(phronesis), 지적 덕(intellectual virtue), 도덕적 덕(moral virtue), 가정교육의 본질(nature of family and consumer science education)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정교육 학계 및 현장에서는 '가정교과는 실천교과'라는 점에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정과 교육과정에 실천 관련 개념이나 용어가 반영되어 왔다(교육부, 1994, 1997, 교육인적자원부, 200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998). 교육과정에 '성격' 항목이 별도로 신설된 제 6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수학습 활동에서는 실생활에의 유용성이 중시되는 교과 성격에 유의하여, 단순한 지식과 기능의 습득보다는 이를 일상생활에 실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교육부, 1994)로 가정과의 성격을 제시하고 있다.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실생활에의 적용을 중시하는 실천교과"(교육부, 1997)로 실과(기술가정)의 성격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가정과 교육과정에서 실천 개념을 실용적이며 응용적인 성격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최근에 수행된 연구(김영희, 1996, 이춘식 외, 2001, 유태명 외, 2004, Brown, 1993, Baldwin, 1991, Brown and Baldwin, 1995, AHEA, 1993, Laster and Thomas, 1997, Johnson and Fedge, 1999, Vaines, 1993, Granovsky, 1997, NASAFCS, 1998)의 두드러진 성향은 Habermas(1971)의 *Knowledge and Human Interest*에서 분류된 세 가지 패러다임 중 비판과학 패러다임에 기초하여 실천 개념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국내외에서 수행된 바 있는 학술적 연구에서 실천 개념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공존하는 것도 사실이다(김경미, 1993).

현대의 학문은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학문을 성격에 따라 분류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이 점을 감안하더라도 학문 성격의 본질에 대한 학계나 현장의 완전한 합의는 불가능 할지 몰라도 그 본질이 상반될 경우 문제가 야기된다(Brown, 1980). 학문의 성격을 규명하는 일은 단순히 학문의 분류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학문의 목적과 대상, 학문의 내용, 학문의 방법 등과 같은 일련의 학문의

본질에 대한 지향성을 알고, 학문의 이론과 실천과 관련된 활동을 지향성에 준해 구현할 수 있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므로 가정교육의 실천적 성격의 본질에 대한 합의에 이르려는 학계와 현장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실천 개념은 이론과의 연관성에 대해 철학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중요하게 논의되어온 주제로서 단순히 시대별 철학자들의 실천 개념을 소개하는 것만으로도 그 범위와 문헌의 양은 방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철학계에서는 이론과 실천의 주제를 집대성한 저서들(Ball, 1977, Lobkowitz, 1967, Habermas, 1973)이 있다. 가정학에서도 Brown(1993)은 가정학 역사에서 어떤 철학적 배경으로 실천의 개념이 기술의 개념으로 왜곡 되었는지 아리스토텔레스에서 하버마스에 이르기까지의 철학을 통하여 고찰한 바 있다. 그러나 철학적인 배경이 없는 가정교육 전공자들이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대적으로 혹은 철학자별로 실천의 개념을 요약하여 피상적으로 소개하는 것을 중복하는 작업은 더 이상 큰 의미가 없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한 시대마다 혹은 개별 철학자마다의 실천 개념을 철학 전공자로서가 아니라 가정교육자의 입장에서 가정교육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조명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가정교육에서의 실천 개념을 고찰하기 위한 시론으로서 그 첫 번째 철학자가 아리스토텔레스가 타당한 것은 우선 대부분의 학자들이(박승찬, 2002 이학주, 1989, Ball, 1977, Lobkowitz, 1967, Habermas, 1973) 실천 개념을 구체적으로 다루었던 철학자는 아리스토텔레스에 동의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가정학의 경우에서도 아리스토텔레스가 분류한 학문의 범주와 관련하여(East, 1980, Vincenti, 1981, Brown, 1993, 유태명, 1992) 혹은 어원 고찰을 통하여(문수재 외, 1996, 이기영, 1997; 윤숙현, 1995) 가정학의 학문적 성격을 논한 것에서 그 당위성을 찾을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활동 영역을 *theoria*, *praxis*, *poiesis*로 분류하였는데 가정교육

육은 이 중에서 praxis에 해당한다'와 같은 수준에서 가정교과를 실천교과라고 하는 것은 단지 과학이나 수학이 theoria에 해당하는 것과 대별하여 학문 혹은 교과를 분류한 것 이상의 이해에 도달하는 데에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한다. 그보다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실천은 어떤 특성 등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이 실천에 이르게 하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실천에 이르는지 등을 이해하는 것이 가정과교육에서의 실천 개념을 고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간 활동의 범주를 피상적으로 소개하기보다는 실천 개념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되는 개념으로 실천적 활동(praxis)에 이르게 하는 지적 덕인 실천적 지혜(phronesis) 개념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다. 또한 실천적 지혜는 실천적 활동을 통해서 도달되는 덕이기에 두 개념은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실천적 지혜의 개념은 우선 아리스토텔레스의 덕론에 제시된 여러 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덕의 분류 및 다른 덕과의 관계 측면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또한 실천적 지혜의 역할과 적용단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가정과교육 전공자들에게 생소할 수 있는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기초하여 가정과교육에서의 실천 개념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각 부분을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 요구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가정과교육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에 핵심이 되는 실천 개념을 논쟁의 장으로 열어 놓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덕론에서의 실천 개념¹⁾, 특히 실천적 지혜 개념을 고찰하고, 이를 기초로 가정과교육에서 실천 개념을 정립하는 데 논쟁이 되고 있는 관련 주제와 연계하여 논함으로써 가정과교육에서의 실천 개념의 지향점을 제안하는 데 있다. 여기에서 시론이라 한 것은 가정과교육의 실천 개념에 대한 고찰은 아리스토텔레스를 처음으로 다루되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연구로 마무리 될 수 없다는 뜻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 제안된 가정과교육에서의 실천 개념의 지향은 완전한 것이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의 덕론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부분적인 것이 될 것이다. 이 시론을 바탕으로 가정과교육 학계에서 증세와 근대 및 현대 철학자들의 실천 개념에 대한 후속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

면 그 연구결과가 집대성된 가정과교육에서의 실천 개념이 제안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가 가정과교육의 철학 정립에 일조할 수 있게 될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다.

2. 연구내용과 범위

아리스토텔레스의 덕론에서 실천적 지혜는 핵심적인 개념으로 덕의 분류에서의 위치와 그 특성, 다른 덕과의 관계, 실천에 이르게 하는 데 있어서의 역할과 작용 등의 측면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을 하나의 연구에서 효율적으로 다루는 것은 연구자와 그 대상이 철학 전공자일 경우 아리스토텔레스의 덕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공유하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 물론 철학분야에서는 이 연구에서보다 심도있게 다루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 연구의 연구자와 대부분의 대상이 가정과교육 전공자이므로 철학에서의 문헌 인용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덕론의 내용 자체에 대해 부연하여 논의 할 것이 요구되기 때문에 용이하지 않다. 이에 아리스토텔레스의 덕론에서의 실천적 지혜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부분은 아리스토텔레스 덕론에서 실천적 지혜의 위치 및 다른 덕과의 관계 측면에서 다루고, 둘째 부분은 실천적 지혜가 praxis로 이끄는 데 있어서의 역할과 적용단계 측면에서 후속연구를 통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그 첫째 부분에 해당하는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내용을 다루었다.

첫째, 아리스토텔레스의 덕론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덕론에서 실천적 지혜는 어떤 위치를 차지하며, 덕들의 특성과 서로의 관계는 어떠한지 파악한다.

둘째,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천적 개념의 고찰을 통하여 가정과교육에서의 실천 개념의 지향점을 논의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상과 같은 연구내용을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연구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천 개념에 대한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연구된 광대한 문헌을 연구의 범위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하였다. 우선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천 개념과 관련하여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주 논의 대상으로 하였고,

1) 이 연구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천적 지혜(phronesis)의 개념을 중점적으로 다루지만 논의 과정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천과 관련된 여러 개념(praxis, phronesis, phronimos 등)을 통칭하는 개념을 말할 때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천 개념'의 용어로 사용한다.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대한 대표적 2차 문헌을 참고하였다. 또한 국내외 학술정보기관과 학술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학술정보 중 Aristotle, Nicomachean Ethics, 덕론, 이론과 실천, 실천적 지혜, praxis, practical wisdom, phronesis 등의 관련 주제로 검색한 학위논문과 학술논문 중 철학, 교육학 및 가정학 분야의 논문으로 제한하였다. 둘째로, 이 연구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천 개념을 이해하고 논하는 작업의 범위가 지대하기 때문에 가정과교육에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 내용에 중점을 두었고 그동안 가정과교육이나 가정학 분야에서 논의되어 왔던 실천 개념과 관련된 문헌의 고찰을 최소로 제한하였다. 그 이유는 그동안 가정과교육 분야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술을 인용하면서도 그 이해도가 피상적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고찰이 지면을 할애하기보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천 개념을 심도있게 이해하는 데 최우선의 목적을 두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 논의된 가정과교육에서 지향하는 실천 개념은 전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덕론에 대한 논의를 기초하는 것으로 제한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천 개념은 상술한 바와 같이 가정과교육의 실천 개념을 제안하기 위한 연구의 시초이며 그 일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의 다른 철학자들의 실천 개념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지고 이를 가정과교육에서의 논의와 아우르는 총체적인 고찰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이다.

3. 인용 방법 및 용어의 사용

이 연구는 기원 전 4세기의 아리스토텔레스(BC 384-BC 322)의 철학을 연구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서를 인용하는 방법이 현재 학술 논문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APA style 등과 다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철학 분야의 문헌을 참고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헌에서 이 연구의 주제를 한국어, 그리스어, 영어의 다양한 언어와 다양한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가정과교육 전공자들에게 익숙하지 못한 주제나 개념을 다루고 있다고 해서 편의상 혹은 용어 정의를 사용하여 연구자 임의로 하나의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는 것은 그동안 철학 분야에서 용어 자체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되어오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적절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

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인용의 방법과 용어의 사용을 안내하고자 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에 대한 저서는 니코마코스가 편집한 <니코마코스 윤리학>(Ethica Nicomachea, The Nicomachean Ethics)과 수학자 에우데모스가 편집한 <에우데모스 윤리학>(Ethica Eudemeia, The Eudemonian Ethics)이 있다(이경희, 1987). 이 중에서 <에우데모스 윤리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을 연구하는데 보완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보다 널리 연구하고 참고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도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비롯하여 아리스토텔레스 저작의 페이지 수를 인용하는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최명관(1984, 27)은 “하나는 19세기 프랑스의 그리스어 학자 디도(Didot)에 의한 것으로 영국의 편찬자들과 주식자들이 이에 의거한다. 또 하나는 베커(Bekker)가 편찬한 프로이센 학술원판에 의거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베커판에 의거하여 Ethica Nicomachea IV, 3. 1139b 31-34라고 표기한 것은 <니코마코스 윤리학> 제 4권 3장의 1139페이지 오른쪽 칸 31-34줄을 가르킨다. 한 페이지는 두개의 칸으로 나누어 왼쪽은 a, 오른쪽은 b로 나누어 표기하고 있다. 대부분의 참고문헌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연구에서도 베커판 인용 방법에 의거하였다. 이 연구에서 아리스토텔레스를 직접 인용한 것은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국한하고 있는데 몇 권 몇 장도 표기된 페이지 수로 쉽게 위치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고 간략하게 영어판 약자를 이용하여 NE 1139b 31-34와 같이 표기하였다. 간혹 인용한 문헌 중 줄 수를 표기하지 않는 문헌을 인용할 경우는 NE 1139b와 같이 간략하게 표기하였다. 그리스어로 <니코마코스 윤리학>은 Ethica Nichomachea로 약자로 EN으로 표기하나, 이 연구에서는 영문판을 참고하였기 때문에 NE로 표기하였다. 본문 중 따옴표를 이용하여 아리스토텔레스를 직접 인용한 것의 출처는 최명관(1984)으로 별도로 참고문헌을 일일이 제시하지 않고 관례대로 베커판의 페이지 수만 제시하였음을 밝혀둔다.

이 연구에서 문헌을 인용할 때는 원 저자가 한국어, 그리스어, 영어의 다양한 언어와 다양한 용어로 사용한 것을 그 다양함으로 말미암아 철학 전공자가 아닌 가정과교육 전

공자들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그리스어를 알파벳으로 음역하여 표기한 것으로(전재원, 1993) 바꾸어 인용하였다. 이렇게 한 또 다른 이유는 이 연구가 실천 개념을 알아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하나의 고정된 번역어를 사용하여 각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용어에 대한 의미로 개념화할 혹은 의미를 제한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원 저자들이 용어를 한국어나 영어로 번역하여 사용할 때 그 이유나 근거를 달리하여 주장한 점을 존중하여 원 저자의 의도하는 바를 훼손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여러 문헌에서 사용한 용어를 정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다만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번역한 최명관(1984)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글을 직접 인용할 경우에 한해서 예외로 그대로 인용하였다. 예를 들어 본문 중에 연구자는 phronesis를 실천적 지혜로 사용하지만 최명관(1984)에서 직접 인용할 경우 실천지라는 용어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인간의 활동과 관련된 용어의 사용:

theoria(테오리아): 관조적 활동(김기수, 1997), 사변적 생활(김태오, 1991), 사색하는 생활(이경희, 1987)
 praxis(프락시스): 실천적 활동(김기수, 1997), 실천(편상범, 1999, 김남희), 행위(편상범, 1998), 행동(전재원, 1993), 실천적 생활(김태오, 1991)
 poiesis(포이시스): 제작(편상범, 1999), 생산적 활동(김기수, 1997), 기술(편상범, 1998), 제작적 활동(김기수, 1997)

지적 덕과 관련된 용어의 사용:

sophia(소피아): 완전지(편상범, 1999), 지혜(최명관, 1984), 이론적 지식(김기수, 1997, 전재원, 1993), 철학적 지혜(김기수, 1997), 논리적 지혜(이경희, 1987)
 episteme(에피스테메): 학적 인식(김기수, 1997, 최명관, 1984), 이론지(박성호, 1990), 학문지(김태오, 2004), 논증지(편상범, 1999), 지혜 또는 지식(이경희, 1987)
 nous(누스): 직관지(편상범, 1999, 김기수, 1997), 이성(최명관, 1984, 이경희, 1987)
 phronesis(프로네시스): 실천적 지혜(박전규, 1985, 김기

수, 1997, 이경희, 1987), 실천지(김봉미, 1991, 김태오, 2004, 손병석, 2000, 박성호, 1990, 편상범, 1999, 최명관, 1984), 현명함(전헌상, 2005), 실제적 지혜(김현주, 2001), 사려(최명관, 1984)

techne(테크네): 기술(김기수, 1997), 기술적 생활(김태오, 1991), 기술지(박성호, 1990), 제작지(편상범, 1999)

또한 이 연구에서 아리스토텔레스 덕론의 줄기에 해당하는 두 가지 덕과 관련된 용어는 지성적 덕과 윤리적 덕(전재원, 1993), 지적인 탁월함과 성품적(윤리적) 탁월함(편상범, 1998), 지적 덕과 도덕적 덕(이경희, 1987)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연구자가 이 용어에 대해 논의할 때는 지적 덕과 도덕적 덕으로 표현하였다.

II. 아리스토텔레스의 덕론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천의 영역을 윤리적 학으로 발전시킨 철학자이다(김봉미, 1991). 아리스토텔레스의 덕론 중에서 이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살펴 볼 실천적 지혜(phronesis)는 기원 전 5세기 phronis라는 고어의 대치어이다. 어원적으로 phren은 정신과 감성을 통틀어 지칭하는 것으로 소포클라테스는 성품이 좋은 것으로, 소크라테스는 인간사를 심사숙고하여 사려 깊고 인간에게 유용한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기능이라고 하여 좋고 나쁜 것을 아는 인식인 episteme와 동의어로 사용하였다. 플라톤은 nous나 sophia와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하였다(이경희, 1987). 아리스토텔레스 자신도 초기 저술에서는 플라톤과 유사한 방식으로 사용하다가 <에우데모스 윤리학>에 이르러 실천적 지혜 개념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여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확실히 전문적인 용어로 이 개념을 사용하였다(Rowe, 1971, 김태오 2004 재인용). 즉 플라톤의 경우 어떤 행동이 올바른 행동인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idea를 인식하는 sophia가 주요 역할을 한다고 보았으나,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이르러 phronesis의 역할로 차이를 두었다. 이 부분이 실천의 영역을 플라톤과 달리 조명한 아리스토텔레스가 평가받는 부분이고, 이 연구에서 아리스토텔레스를 실

천 개념 고찰을 위한 첫 번째 철학자로 다루는 이유이기도 하다.

Phronesis는 라틴어로 prudentia로 번역되어 후에 프랑스어와 영어에서 신중함, 조심성 있음, 용이주도함을 뜻하게 되었다(김기수, 1997).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phronesis를 가장 인간적인 실천을 위한 지혜를 의미하였고, 아리스토텔레스 연구의 대가인 Ross(1949)가 practical wisdom으로 번역한 것이 널리 쓰이고 있다(이경희, 1987). 이 연구에서도 이를 따라 실천적 지혜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 개념이 서양 윤리학에서 흔히 실천이성이라고 일컫는 개념의 시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김대오, 2004). 이러한 어의를 갖는 실천적 지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덕론이라는 맥락 안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의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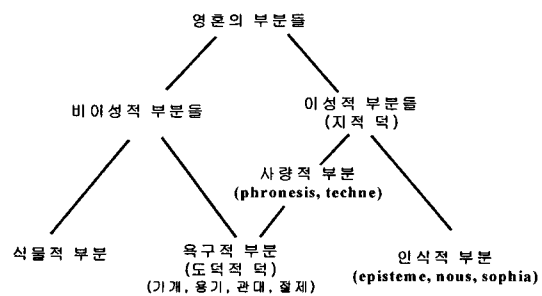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추구하는 삶의 최고의 선은 행복이며, 행복을 “좋은 생활 및 좋은 행위”(NE 1102a)라고 정의하고 “행복한 사람이란 잘 살며 잘 행하는 사람”(NE 1102a)으로 보았다. 이 행복은 덕에 의해서 달성될 수 있다고 하였다(이경희, 1987). 덕이란 인간에게 좋은 삶을 성취하거나 실천하도록 하는 일종의 능력으로, 덕의 실천은 곧 좋은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덕은 인간의 올바른 행위를 유발하는 동기나 의도와 다르지 않다(김현주, 2001). 인간에게 좋은 삶이란 이성적 원리(올바른 이치, logos)를 따르는 영혼의 활동이나 행위이고(NE 1198a 13), 여기서 좋은 생활과 좋은 행위는 인간으로서의 최선의 생활을 영위하고 최선의 행위를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최명관, 1984). 인간의 덕은 인간 존재의 가장 훌륭한 상태를 말하며, 인간의 고유한 기능인 이성을 가장 잘 발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덕은 탁월성으로 번역되기도 한다(김기수, 1997).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 2권-5권에서 도덕적 덕에 대해, 6권에서는 지적 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인간에게 있어서 덕은 식동물과는 달리 정신기능의 발휘에서 드러난다고 하였다(이경희, 1987).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활동에 대응하는 인간의 탁월함을 분류하기 위하여 인

간의 영혼 혹은 정신을 이성적 부분과 비이성적 부분으로 나누고(NE 1139a), 다시 비이성적 부분을 영양과 성장을 함양하는 식물적 부분과 운동을 담당하는 욕구적 부분으로 나눈다. 그중에서 식물적 부분은 모든 생물에 공통적인 능력으로서 인간의 탁월성을 드러내는 부분이 아니므로 제외되고 결국 이성적인 부분과 욕구적 부분이 남는다. 이에 대응하여 인간의 탁월함을 각각 지적인 탁월함과 성품적(윤리적) 탁월함으로 분류한다(편상범, 1999). 이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덕을 각각 지적 덕과 도덕적 덕의 용어로 사용한다. 지적 덕에 속하는 것이 sophia, phronesis, techne, episteme, nous이고, 도덕적 덕에 속하는 것이 절제, 관대함, 용기 등이다.

아리스토텔레스(NE 1139a, 5-15)는 인간 영혼 혹은 정신의 이성적 부분을 다시 인식대상을 그 단초가 달리 있을 수 없는 것들과 달리 있을 수도 있는 것들로 나누고, 이에 대응하는 영혼의 요소를 인식적 부분(the scientific)과 사랑적 부분(the calculative)이라 불렀다(김기수, 1997). 인식적 부분에 관계하는 덕으로 sophia, episteme, nous가 있고, 사랑적 부분에 관계하는 지적 덕으로 phronesis와 techne가 있다.

이상과 같은 영혼의 부분들의 구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재원(1993)의 틀을 [그림 1]에 제시하였고, 여기에 연구자가 영혼의 각 부분에 관계하는 덕을 추가하여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그림 1]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혼구분
(출처: 전재원, 1993)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림 1]의 식물적 부분을 총체적으로 비이성적인 것으로, 욕구적 부분을 비이성적 부분이지만 이

성에 복종할 수 있기 때문에 이성적 원리(logos)를 어느 정도 나누어 가지는 것으로 보았다(NE 1102b). 이성적 부분에서 인식적 부분은 자체 안에 엄밀한 이성적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랑적 부분은 이성적 원리에 순종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림 1]에서 사랑적 부분과 욕구적 부분을 연결한 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영혼의 욕구적인 부분을 철저히 비이성적인 부분으로만 본 것이 아니며, 욕구적 부분도 어느 정도 이성에 참여한다고 보았다”(편상범, 1999)는 해석을 잘 표현하고 있다.

2. 지적 덕

이 연구는 가정과교육에서 주창하는 실천과교로서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praxis에 관계하는 덕인 실천적 지혜에 관한 것이다. 실천적 지혜는 인간 영혼 혹은 정신의 이성적인 부분을 잘 발휘하도록 하는 지적 덕에 해당하는 덕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도덕적 덕에서 중용을 찾는데 필수적인 요소로 도덕적 덕과 밀접한 덕으로 보고 있다. 여기서는 먼저 지적 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지적 덕이 관계하는 대상의 존재론적 구분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적 덕을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방식은 지적 덕이 관계하는 대상의 존재론적 구분에 근거하여 ‘달리 있을 수 없는 것’ 즉 필연적인 것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과 ‘달리 있을 수 있는 것’ 즉 개연적이고 상대적인 것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구분하는 방식이다. 둘째 방식은 관조에 관계하는 덕과 행동에 관계하는 덕으로 구분하는 것이다(전재원, 1993).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두 구분 방식 상호 간의 관계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지만 우선 첫째 방식에 근거하여 지적 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영혼의 이성적 부분의 역할은 진리를 파악하는 것이며, 진리획득에 관계하는 것은 지적 덕이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적 덕에는 다섯 가지가 있다(박성호, 1990). 진리를 파악한 영혼의 상태를 *techné*, *epistémē*, *phronésis*, *sophia*, *nous*로 분류한다(NE

1139b). 이러한 분류는 인간의 지적 능력이 관계하는 대상의 종류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이미 [그림 1]의 영혼의 이성적 부분에 대한 설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이성적 부분을 ‘달리 있을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달리 있을 수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나눈다. 전재원(1993)은 각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달리 있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것이고, 달리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전자는 필연적인 것이고, 후자는 개연적 혹은 우연적인 것이다([그림 2] 참조). 전자는 영원불변하는 것이고 수학, 자연학, 형이상학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 반하여 아직 없는 것을 산출하고 이미 있었던 것을 변혁하는 것은 후자의 영역에 속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중에서 ‘달리 있을 수 없는 것’(NE 1139b)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적 부분의 덕인 *epistémē*, *nous*,와 *sophia*를 각각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Epistémē*는 불변적이고 필연적인 존재에 관해 논증할 수 있는 능력이며(편상범, 1999), 타당한 추론의 과정을 통해 필연적인 진리를 파악하는 것이다(NE 1140b). 그러므로 *epistémē*는 필연적이고 영원한 것에 대한 논증에 의한 인식이다(김기수, 1997). *Epistémē*는 보존 가능하며 따라서 전수 가능하여 배우고 가르침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즉 이미 알려진 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최상의 인식방식은 될 수 없다(반성택, 1997). 이 출발점은 *nous*에 의해서 주어진다(전재원, 1993).

*Nous*는 불가능적인 제 1원리를 파악하는 능력이다(NE 1141a). 모든 지식은 더 이상 논증될 수 없는 궁극적인 원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원리의 파악이 바로 *nous*에 이해 가능하다(편상범, 1999). 여기서 제 1원리(근본 전제)란 어떠한 논증에도 의존함이 없이 논증의 전제가 되는 명제를 의미한다. 이때 *nous*는 이것을 논증이나 추론 없이 직접적이고 비매개적으로 파악한다(김기수, 1997). 그러므로 *nous*는 필연적으로 참인 것을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지적 덕이다(전재원, 1993).

*Sophia*는 제 1원리를 파악하는 *nous*와 논증적인 *epistémē*가 결합된 가장 완전한 지적 상태를 말한다(NE 1141a, 편상범, 1999). *Sophia*는 제 1원리 자체와 그것으

로부터 타당하게 추론된 결론들을 모두 인식하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앎의 유형 중에서 가장 완성된 것이다(김기수, 1997). 이상을 요약해보면 episteme는 이론적 논증에 사용되는 능력, nous는 제 1원리가 출발점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능력이며, sophia는 nous와 episteme를 결합한 완전한 지적 상태로 볼 수 있다(전재원, 1993). 편상범(1999)은 이와 같은 특성을 갖는 인식적 부분의 덕을 각각 논증지, 직관지, 완전지로 번역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달리 있을 수도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사랑적 부분의 덕인 techne와 phronesis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Techne와 phronesis는 모두 가변적 대상(달리 되는 것이 허용되는 것)에 관계하며 (NE 1139b), techne는 생산(제작)에, phronesis는 인간의 행위에 관계한다(편상범, 1999). Techne는 올바른 이치에 따라 제작할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E 1139b). Techne는 특정의 목적에 봉사하는 덕으로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좋은 수단은 제공하지만, 목적 자체의 좋고 나쁨을 검토하지는 않는다. Techne는 경험을 통하여 획득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동일한 것에 대한 많은 기억들이 하나의 경험을 구성하고, 하나의 경험에 대한 사유들이 보편적인 파악에 이를 때 기술이 생긴다고 하였다(Metaphysics, 980b-981a, 김기수, 1997, 재인용).

Phronesis는 인간적 선을 아는 능력이다(전재원, 1993). 즉 실천적 지혜의 목적은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인데(NE 1140b) 이를 위해서는 사태에 관련된 모든 것을 알아야 하고, 사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김기수(1997, 13)는 "실천적 지혜는 실천적 활동(praxis)에 관계하는데 이는 인간적 선을 추구하며 올바르게 사는 것을 의미한다. 실천은 특수한 도덕적 상황에서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을 함의하며, 실천의 목적은 도덕적인 선을 실현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실천적 지혜는 경험과 실천을 통해 획득되며 개별적이고 특수한 것에 관계한다.

실천적 지혜는 다시 그 대상에 따라 셋으로 나누어진다. 실천적 지혜의 하위 영역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천지는 특히 자기의 한 몸에 관계되는 지혜로 여겨지고 있는데 실상 이 실천지(내지 사려)는 다른 여러 가지 것에도 공통되는 일반적인 명칭이다. 이밖에 이 명칭으로 불리울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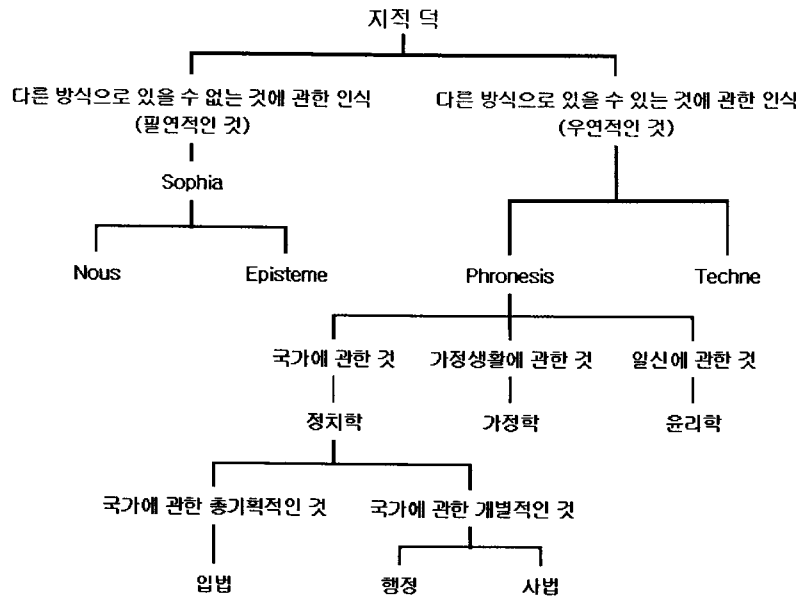
있는 것은 첫째 가정, 둘째로 입법, 셋째로 정치인데, 이 마지막 것에는 행정과 사법이 있다."(NE 1141b)라고 하였다. 개인의 선에 관계될 때 그것은 좁은 의미에서의 실천적 지혜이다. 가정생활에 관계될 때 그것은 economics라고 부른다. 국가에 관계될 때 그것은 넓은 의미에서의 정치학이라고 부른다(이경희, 1987). 여기서 Ross(1949)가 번역한 economics는 그리스어 oikonomia를 어원으로 하여 household management를 의미하기 때문에(East, 1980) 현대 학문체계에서 경제학이라고 보기보다는 가정학을 의미한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실천적 지혜의 출발점은 공통의 것이 아니라 나에게 좋은 것이었다. 그러나 폴리스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은 공동체 없이 생각될 수 없으므로 공통으로도 좋은 것이라는 의미한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공통으로 좋은 것이 되기 위해서는 공동체 의식에 대한 기본 소양을 키우는 도덕적 문제가 근본적으로 제기된다. 참된 이치란 logos를 의미하며, logos는 말을 세운다는 뜻으로 근거를 제시하고 해명함을 말하며, 말을 세울 상대자를 요구하고 전제한다. 근거지움이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자기화하는 과정으로 근거지우는 것에 대한 지식을 전제한다(김봉미, 1991). 실천적 지혜를 가진 사람은 도덕적 관점에서 자기의 실천적 상황의 특수성을 보는 사람이며, 언제나 이에 근거하여 행동하는 사람이다(김기수, 1997).

영혼의 이성적 부분에 해당하는 지적 덕을 Ross(1949), East(1980), 최명관(1984)을 기초로 [그림 2]에 제시하였다.

2) 지적 덕이 관계하는 인간 삶의 영역

아리스토텔레스가 지적 덕을 구분하는 둘째 방식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아리스토텔레스(NE 1095b)는 인간의 삶을 크게 관조하는 삶, 제작하는 삶, 실천하는 삶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김현주, 2001). 이러한 활동을 theoria, poiesis, 그리고 praxis라 하고, 이러한 활동과 관련하는 덕을 각각 episteme, techne, phronesis라 하였다. 앞서 아리스토텔레스를 인용한 바와 같이 sophia가 nous와 episteme를 합친 것이기 때문에(NE 1141a) 넓은 의미에서 sophia, phronesis, techne로 보기도 한다. 이러한 지적 덕



[그림 2] 아리스토텔레스의 지적 덕
(출처: Ross, 1949, East, 1980, 최명관, 1984))

이 관계하는 인간 삶의 활동영역인 theoria, poiesis, 그리고 praxis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Theoria는 관조의 활동 혹은 삶으로, 수학, 형이상학, 물리학과 같이 순수한 실재들에 관해 연구한다든가, 자연과 그 내부 요소들의 운동에 관해 연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김현주, 2001). Sophia를 가지고 있는 사람(sophos)은 그것을 가지고 진리를 관조한다. 그리스인에게 theoria는 자유인이 철학하는, 사색하는 삶이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관조를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활동으로 간주한다. 이 활동은 영원하고 불변적인 것을 대상으로 하며 자족성과 즐거움이 가장 많은 활동이다(김기수, 1997). Theoria는 본래 구경꾼, 방관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특별히 숭고한 생활방법과 연결된 것으로서 참으로 자유스러운 인간이 지향하는 바를 의미했다(Lobkowitz, 1967, 이경희, 1987 재인용).

Poiesis는 제작적 활동 혹은 삶이며, 기술이나 공학처럼 이미 정해진 모종의 이론이나 이치를 따라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삶이다(김현주, 2001). Poiesis은 techne의 안내를 받아서 그 결과로 어떤 것이 생겨나게 하는 활동이며, 그 활동의 목적은 사전에 알려져 있다. 즉 일종의 도구적 활동

으로 내재적 목적을 갖지 않는다. 그러므로 poiesis는 모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해진 이론이나 질차를 따르는 생산적 활동이다(김기수, 1997).

Praxis는 실천하는 삶으로 정치나 교육과 같이 인간을 위해서 좋은 것과 나쁜 것에 관해 숙고하고 이를 실현하는 활동이다(김현주, 2001). 그리스인에게는 정치하는 활동을 의미하였고, Carr(1995, 김현주, 2001 재인용)는 윤리적으로 숙고된 행위라고 표현하였다. Praxis는 poiesis와 마찬가지로 모종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활동이나 poiesis의 그것과 달리 어떤 대상이나 결과물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도덕적으로 가치있는 선을 실현하는 행위이다(김현주, 2001). 그러므로 목적이 행위 안에 내재되어 있다. Machintyre(1984, 김현주, 2001 재인용)는 아리스토텔레스가 praxis에 관계하는 phronesis를 그 어떤 덕보다도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좋은 삶은 바로 praxis와 다른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Praxis는 바로 phronesis를 실천하는 삶이다. 따라서 그에게 있어서 phronesis는 인간의 좋은 삶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인식되었다.

전재원(1993)은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praxis를 때로는 행동의 의미로 때로는 행위의 의미로 사용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실천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 praxis는 이러한 의미를 모두 다 함의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의 학위 논문에서는 그 중에서 외연이 가장 넓은 행동을 번역어로 사용한 바 있는데 그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행동은 인간을 포함하는 모든 동물에게 가능한 직접적이고 반사적인 장소 이동을 의미하고, 행위는 인간에게만 고유한 logos를 수반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구별을 엄밀하게 적용하지 않는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logos를 수반하는 행동 중에는 도덕적 행동도 있고 도덕과는 무관한 행동도 있다는 점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praxis와 poiesis의 구별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praxis의 형용사인 praktikos는 ‘실천적인’으로 번역될 수도 있고 ‘행동에 관계하는’으로 번역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실천과 행동의 구별이 무시되어도 좋다고 보았다”(전재원, 1993, 8). 실제로 여러 문헌에서 실천적 활동(김기수, 1997), 실천(편상범, 1999, 김남희, 2004), 행위(편상범, 1999), 행동(전재원, 1993), 실천적 생활(김태오, 1991)로 번역하고 있다. 이 역시 고정된 번역어로 사용했다기보다는 논의의 문맥상 그 의미에 따라 다르게 번역한 것이다. 행동과 행위의 의미의 차이에 대해서 Brown(1985)은 Arent(1959)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행동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고 행동의 결정에 의식적으로 도달하게 하는 행동하는 사람의 사고와 의도가 축적되어 나타나는 행동으로 보았다. 또한 개인의 행동이 사회에 주는 파급효과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행동은 단순한 사람들의 집합체인 청중보다는 가치를 생성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합의를 구축하려는 의견에 맞서는 사람(encounter)으로서의 대중(public)을 필요로 한다. 행동은 창의성과 독창성을 가지며, 말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praxis의 개념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다루고, 연구의 내용에서 밝힌 바와 같이 praxis에 이르게 하는 phronesis의 역할과 작용은 후속연구에서 다루기로 한다. 그러므로 phronesis에 대해 후속연구에서 보다 자세히 다룰 경우 보완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의 논의를 기초로 praxis를 잠정적으로 가정교육에서의 praxis를 ‘개인 및 가정생활에서 도덕적으로 실천하는 행동, 개인 및 가정생활

에서 속고를 통해 선을 구체화 또는 실현하는 행동, 혹은 개인 및 가정생활에서 최선의 선을 추구하는 좋은 삶’의 의미로 보고자 한다. 차후 아리스토텔레스의 praxis의 개념에 대해 과학성의 결여를 비판한 Habermas(1973)의 주장과 Habermas(1979, 1984)가 제시한 의사소통적 행동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praxis에 대한 합리적인 개념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3. 도덕적 덕

영혼의 구분을 나타내고 있는 [그림 1]에서 도덕적 덕은 영혼의 욕구적 부분에 해당한다. 영혼의 비이성적 부분에 속하기는 하지만 욕구적 부분은 어느 정도 logos를 나누어 가진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도덕적 덕은 사람의 정신 활동으로 인해 생기는 정념, 능력과 성품 중에서 성품 즉, 성격의 상태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다(NE 1105b).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적인 덕은 대체로 교육에 의하여 발생도 하고 성장도 한다. 그렇게 때문에 그것은 경험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NE 1103a). 한편 도덕적 덕은 기술과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응하는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습득된다고 하였다. 즉 도덕적 덕은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것, 습관에 의해서 생긴다고 보았다(NE 1103a). 아리스토텔레스는 “도덕적인 덕들은 본성적으로 우리 속에 생기는 것도 아니요, 본성에 반하여 우리 속에 생기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본성적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이도록 되어 있으며, 또 그것들은 습관에 의하여 완전하게 되는 것”(NE 1103a)으로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도덕적으로 선하게 될 수 있는 세 가지 방식, 즉 본성, 습관과 교육에 대해 검토하였다(NE 1170b). 또한 <정치학>에서도 본성, 습관, 이성(logos)을 함께 고려하였는데 인간이 선하고 덕스럽게 되기 위해서 이 세 요소가 모두 필요하다고 하였다(Politics, VII, 13, 김기수, 1997 재인용). 인간은 타고난 본성, 사회적으로 형성된 습관, 이성적 통찰과 사유의 조화로운 통합을 통해 도덕적 존재로 성장하며, 이성의 작용을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김기수, 1997).

도덕적 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좋은 상태에 이르게 하고 그것의 기능을 잘 발휘시켜 주어 탁월성에 이르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감정과 행위에 있어서 극단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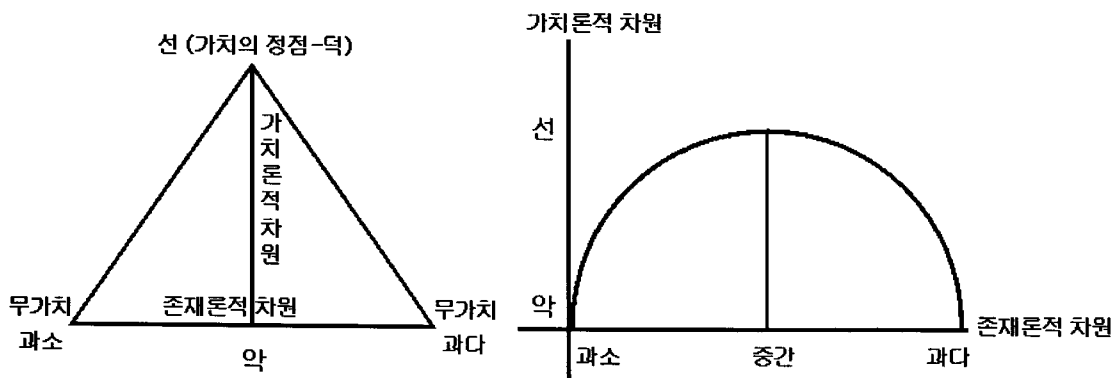
것, 즉 과도한 것과 부족한 것 모두를 악으로 보았다. 그는 “마땅한 때에, 마땅한 일에 대하여, 마땅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마땅한 태도로 이런 것을 느끼는 것은 중간적이며 동시에 최선의 일이다”(NE 1106b)라며 이와 같은 상태를 중용이라 하였다. 그러나 “모든 행위와 정념에 중용이 있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악의 파렴치질투, 그리고 행동의 경우에는 간음절도살인 같은 것이 그런 것이다.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옳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예 있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과도나 부족에는 중용이 없고, 중용에는 과도와 부족이 없기 때문이다.”(NE 1107a).

Hartmann(1932, 하기락 역, 1998)은 [그림 3]에서 덕이 2중의 위치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은 존재론적 차원에서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중간 즉 중용이고, 가치론적 차원에서 가치의 정점 즉, 탁월성과 선이라고 해석하였다. Hartmann(1932, 이재근, 2000 재인용)은 이에 대해 “존재론적으로 보면 특정한 내용에 관계를 가진 모든 종류의 과다와 과소는 영속하여 하나의 직선이 된다. 그러나 가치론적 차원이 부가되면 이 직선이 포물선으로 변한다. 그래서 존재론적 양극단은 그 의미에 있어서 악이 되는 반면 중간은 선에 접근하며 그 정점에 올라가면 덕의 자세에 도달한다.”고 설명한다. 이때의 중용은 산술적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과부족이나 중용은 수학적 공식에 따른 계산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이란 중용에서 성립하는 행위 선택의 성품이다. 이 중용은 이성적 원리에 의하여 그리고 실천적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정할 때에 기준으로 삼을 원리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NE 1106a- 1107b)이라 정의하였다. 이는 덕이 logos와 실천적 지혜를 가진 사람이 정한 규칙에 따라서 근본적으로 중용을 선택하는 성향임을 말해 준다. 인간이 올바른 욕구에 의해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동의 기준과 그런 행동을 위한 지침을 확립(판단)하는 지적 능력이 실천적 지혜이다(박성호, 1990). 그러므로 도덕적 덕의 특징으로 나타나는 중용도 실천적 지혜를 요구하게 된다.

III. 실천적 지혜와 다른 덕과의 관계에 기초한 가정과교육에서의 실천 개념의 지향

여기서는 II장의 아리스토텔레스의 덕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천적 지혜가 다른 덕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의 관점에 기초하여 가정과교육의 실천 개념을 정립하는데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실천적 지혜를 덕의 분류라는 테두리에서 살펴보고, praxis에 이르게 하는 실천적 지혜의 역할이나 적용에 대해서는 후속연구에서 다루게 된다. 그러므로 이 연구의 범위 내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가정과교육에서의 실천 개념의 지향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림 3]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
(출처: Hartman, 1932, 하기락(역), 1998)

1. 실천적 지혜를 가진 사람(phronimos)

가장 좁은 의미에서 실천적 지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은 행동인가를 알려주는 덕이다. 가장 넓은 의미에서 실천적 지혜는 praxis와 poiesis를 모두 포함하는 사랑적 부분의 덕이다. 이때 실천적 지혜는 sophia와 구별된다. 덕이 대응하는 삶의 활동 영역에 따라 실천적 지혜는 techne와 구별되는 덕이다(전재원, 1993). 이상의 것은 모두 지적 덕으로서의 특성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와 더불어 실천적 지혜는 도덕적 덕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이 연구의 범위를 넘어 다루지 않았지만 그 역할에 있어서 실천적 지혜는 심사숙고(eubolia)나 올바른 이치(logos)의 기능과도 관련이 있으면서도 구별된다. 이 절에서는 먼저 가장 좁은 의미에서의 실천적 지혜의 특성에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천적 지혜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실천적 지혜를 지닌 사람(phronimos)의 특성을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마치 Peters(1967)가 교육의 목적을 논함에 있어서 교육받은 사람의 특성을 살핀 것과 유사하다. 실천적 지혜를 가진 사람(phronimos)의 특성에 대해 아리스토텔레스가 "자기 자신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에 관해서 잘 살필 수 있는 것"(NE 1140a)과 "인간을 위해서 좋은 것과 나쁜 것에 관해서 참된 이치를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상태"(NE 1140b)라고 한 것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전재원(1993, 19)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의미한 실천적 지혜를 가진 사람에 대해 "자기가 무엇을 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사람, 실천적 문제들에 대한 답을 이성적으로 탐색하는 사람, 이성적 탐색의 대상은 목적을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미 목적에 대한 참된 파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해석하였다. 김현주(2002)는 실천적 지혜를 가진 사람의 특성으로 숙고를 한다는 것과 윤리적 품성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 후자의 특성은 도덕적 덕과 실천적 지혜가 별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준다. 실천적 지혜를 가진 사람의 특성은 최근 국내외 가정교육에서 대두되고 있는 가정교육을 통한 도덕성의 함양과 도덕적 행동의 중요성(Laster & Thomas, 1997, Johnson, & Fedge, 1999, Vaines, 1993, Granovsky, 1997, 채정현 외, 2003, 문성희, 1999), 실천에 있어서의 이성의 중요성

(Brown & Baldwin, 1995, Rettig, 1998), 고차적 사고의 중요성(Thomas & Laster, 1998, 변현진, 1999, 채정현, 1999), 실천적 문제 중심 교육과정 모형에 대한 관심(Southers, 1996, 채정현, 1996, 이연숙 외, 2005, 유태명, 2006)에서 논의한 바와 그 맥을 같이 함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인간상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제 6차 교육과정(교육부, 1994) 및 제 7차 교육과정(교육부, 1997)과 최근 기술교육이나 실과교육에서 기술적 교양이나 생활의 소양인으로서의 교육(이춘식 외, 2001)을 제안한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가정교육에서도 가정교육을 통하여 갖추어야 할 소양을 제안한 바는 있으나(이춘식 외, 2001) 철학적 연구의 결과로 구체적으로 제시되었기 보다는 가정과의 교육목표와 내용구조라는 제한된 범위에서 수행된 좁은 의미의 소양이었다.

이 연구를 통하여 실천적 지혜를 가진 사람과 관련하여 두 가지 지향점을 제안할 수 있다. 첫째는 가정교육이 실천교과임을 가정한다면 가정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을 phronimos로 교육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교육에서의 phronimos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 요청된다. 물론 실천교과로서 가정교육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인간상의 근본적인 특성은 아리스토텔레스의 phronimos의 특성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실천적 지혜는 자기의 한 몸과 관계되는 지혜로 여겨지고 있는데 실상 이 실천적 지혜는 다른 여러 가지 것에도 공통되는 일반적인 명칭이다. 이밖에 이 명칭으로 불리울 수 있는 것은 첫째 가정, 둘째로 입법, 셋째로 정치인데, 이 마지막 것에는 행정과 사법이 있다."(NE 1141b)라고 하여 이 모든 분야에서 실천적 지혜의 특성과 역할은 같은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그림 2] 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된 특성뿐만 아니라 가정교육에서의 phronimos의 특성을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범위 내에서 잠정적으로 가정교육을 통해 지향하는 phronimos는 '개인 및 가정생활에서 일어나는 실천적 문제의 구체적 상황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모두를 위해 최고의 선을 구체화하는 행동(praxis)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때 개인 및 가정생활에서 최고의 선인 모두의 안녕이란 무엇인가와 이것을 위한 최선의 행동은 무엇인가에 대한 참된 파악을 할 수 있으며, 올바른 이치에 따르고 심사숙고-

선택결정-실천의 과정을 통하여 praxis에 이를 수 있는, 즉 개인 및 가정생활에서 잘 행동하고 잘 사는 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phronimos는 실천적 지혜를 발현할 수 있는 여러 영역 중에서 개인 및 가정생활에 관한 것,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전체를 위한 도덕적 행동, 보편적 상황뿐만 아니라 구체적 혹은 개별 상황이라는 실천적 영역에서의 행동, 인간의 최고의 선인 행복을 위해 가정과교육에서의 궁극 목적인 모두의 안녕을 실현하는 것, 안녕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을 파악하는 것, 좋은 것과 나쁜 것에 대한 도덕적 판단과 지적 활동에 기초한 행동, 행동의 지속성이라는 특성을 포함하고 있다.

지금까지 언급되지 않았지만 실천지의 로고스적 능력뿐만 아니라 습관과 관련된 에토스적 능력에 의해 "인간 행동 가운데 그 어떤 것보다도 덕에 따른 활동이 가장 항구성을 갖는 것"(NE 1100b)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praxis로 인도하는 실천적 지혜의 역할에 대해서 아직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후속연구를 통하여 logos를 따르는 것과 판단과정, nous의 역할, 욕구와 지각과 관련된 추가적인 특성을 더 포함하여 실천적 지혜를 가진 사람의 특성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 실천적 지혜와 다른 지적 덕(sophia 및 techne)

이 절에서는 실천적 지혜와 sophia, 실천적 지혜와 techne와의 관계는 가정과교육에서 실천 개념을 지향하는 데에 어떤 함의를 제공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상술한 바에 의하면, 가장 넓은 의미에서 실천적 지혜는 사랑적 부분의 덕이므로 실천적 지혜는 sophia와 구별된다고 하였다(전재원, 1993).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론과 실천은 sophia와 phronesis의 대별성을 의미한다. 동시에 덕이 대응하는 삶의 활동 영역에 따라 실천적 지혜는 techne와도 구별되는 덕이다. 우선 실천적 지혜와 sophia가 각각 영혼의 사랑적 부분과 인식적 부분의 대표되는 덕으로 이론과 실천을 대별한다는 점에서 그 관계를 알아보는 것이 의미 있을 것이다.

Brown과 Baldwin(1995)은 실천과학으로서의 가정학에서 이론과 분리된 실천의 개념은 잘못된 것임을 주장하였

다. 이는 지적인 활동과 분리된 실천적 활동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미와 맥을 같이 한다. Habermas(1973)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천적 지혜는 과학적 엄밀성이 결여된 점을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의사소통적 실천을 주장한 바 있다. 이는 이론과 실천의 밀접한 관계를 시사하고 있다. 실천의 의미에 대해서 이경희(1987)의 praxis와 poiesis를 하나의 실천적 범주로 묶어 sophia와 대별시키지는 않았다는 주장과 전재원(1993)이 실천적 지혜가 가장 넓은 의미에서 praxis와 poiesis를 포함하는 심사숙고적 지성이고 관조적 지성인 sophia와 구별된다고 본 것과 차이가 있다. 이경희(1987)의 이런 주장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poiesis에 대해 theoria와 praxis와 비교하여 큰 비중을 두지 않았고, theoria와 praxis는 구별하였어도 theoria와 poiesis를 비교하지는 않았음에 근거한다. 이는 그리스인에게 theoria와 praxis의 차이만큼이나 praxis와 poiesis의 차이는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 즉, 그리스인들이 고려하지 않았던 구별을 그리스 사상에 도입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박성호(1990)와 전재원(1993)은 techne가 윤리적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 된다고 보았다. 이는 곧 poiesis에 대한 논의도 제외됨을 알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그리스 철학자들은 사색적 생활의 우월성을 주장하기 보다는 철학과 정치가 결합된 생활의 이상을 지지하게 되었다. 이론과 실천의 구별은 원래 두 가지 생활방법 즉, 철학하는 생활과 정치하는 생활의 구별이었던 것이 차후 이론적 사고와 그 외의 거의 모든 종류의 인간의 활동, 특히 생산 활동 사이의 구별로 되었다(Lobkowitz, 1967, 이경희, 1987 재인용)." 근대철학에 이르러 praxis의 고전적 의미가 변화하여 규범적 요소가 단절된 활동, 기술적 유용성을 추구하는 활동을 의미하게 되었다. 즉, Habermas(1973, 김태오, 1991 재인용)는 근대철학에서의 praxis는 과학적 확실성 또는 기술적 통제력에 초점을 두고 praxis의 규범적 의미를 간과한 점을 비판하였다. 이와 맥을 같이 하여 Brown(1986, 1993)은 실천의 의미가 기술의 의미로 왜곡되어 받아들여진 가정학에서의 현상에 대해서 역사적 철학적 관점에서 비판하였다.

이 절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지적 덕의 분류를 아리스토텔레스에 기초하여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근대 및 현대에서 실천 개념이 왜곡된 것을 고려하여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이다. 이 연구의 주제와 범위에 따라 전자에 기초하고자 한다. 실천적 지혜와 다른 지적 덕과의 관계에서 교과와 편제와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고 본다. 이 연구의 단초가 되었던 가정과교육 자체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실과교육 및 기술교육과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대외적으로도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주장의 근거를 세우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가정과교육²⁾에서 교과와 정체성을 기술교과와 구별되는 학문적 배경에서 찾는다면 실천적 지혜와 techne를 구별하는 입장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즉, 앞서 논의한 techne는 합목적적인 제작적 혹은 생산적 활동에 관계하는 덕이고, 실천적 지혜는 목적이 활동 안에 내재하는 심사숙고, 실천하는 활동에 관계하는 덕이므로 둘이 구별된다. 즉 가정교과와 기술교과는 각각에 관계하는 덕이 다르므로 하나의 교과로 편제되기보다는 독립적으로 편제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실과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실과분야의 전공자들과 논의할 것이 요구되지만 전채원(1993)이 말한 가장 넓은 의미의 실천적 지혜가 praxis와 poiesis를 포함하는 사량적 부분 전체의 덕으로 본다면 sophia와 대별하여 실과(기술가정)이라는 교과명에 나타난 바와 같이 중등의 가정교과와 기술교과에 해당하는 초등의 교과로서 실과, 기술, 가정이라는 셋을 아우르는 하나의 교과로서의 일관된 맥락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나 다음의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우선 앞서 가정교과와 기술교과를 학문적 배경이 다르다는 근거로 교과와 정체성을 찾았던 점을 고려하여 phronesis와 techne를 구별하는 좁은 의미에서의 phronesis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실과에서 다른 기준을 사용할 때의 타당성이 결여된다는 점과, 또한 이론교과와 실천교과라는 이원화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하는 교과와 정체성 탐색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가정교과와 techne에 해당하는 다른 분야인 공학이나 예술과 같은 분야와 구별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 힘들기 때문에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phronesis의 개념은 실과, 가정, 기술교과의 정체성 탐색에서 그 준거로서 타당성이 결여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천교과로서 가정과교육의 정체성을 실천적 지혜와 techne와의 구별에서 찾는 또 다른 측면에서의 시사점은 “phronimos의 특징은 자기 자신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에 관해서 잘 심사숙고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어떤 특수한 점에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좋은 삶에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잘 심사숙고하는 것을 의미한다(1140a 25-28)”에서 논의할 수 있다. 전현상(2005)은 이에 대해 phronesis와 techne의 차이가 두 종류의 목적, 혹은 관심 사이의 차이로 설명하였다. “Techne를 통하여 성취되는 것은 그 기술과 관련된 인간 삶의 특정한 영역인 반면, phronesis를 통해 얻어지는 것은 삶의 어떤 특정한 영역이 아니라 잘 삶 자체이다. 잘 삶은 일반적으로 행복, 잘 함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이 뜻은 잘사는 것 일반을 목적으로 하는 행동은 praxis적 행동이요, 어떤 특수한 점을 목적으로 하는 행동은 poiesis적 행동을 뜻한다. 이는 Brown(1980)이 가정과교육은 어느 특정한 가정의 특수한 문제보다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공통적으로 직면하는 문제를 다룬다고 한 점과 Brown(1978)이 심대 임신의 현상의 사례에 대해서 논의할 때 주장한 바 있다. 예컨대 가정과교육에서는 심대 임신과 관련하여 임신을 막기 위한 특정한 목적을 위한 피임의 방법을 처방적으로 가르치기보다는 심대 임신에 이르지 않도록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적 측면과 관계적 측면에서 전인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과와 성격에 더 부합되는 것이라 하였다.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가정과교육에서의 실천은 잘 사는 것 일반을 목적으로 하는 praxis에 관한 것이고, 기술교과는 특수한 영역의 poiesis에 관한 것이므로 하나의 교과에 편제되기 보다는 독립된 교과로 편제되는 것이 타당함을 주장할 수 있다.

실천교과로서 가정과교육의 정체성을 실천적 지혜와 sophia와의 구별에서 찾는다면 “지혜(sophia)가 다루는 것은 언제나 같은 것이요, 실천지(phronesis)가 다루는 것은 그렇지 않고 수시로 변하는 것이라 한 것이다(NE 1141a)”, “실천지는 보편적인 것들에만 관계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또한 개별적인 것들도 알아야 하는 것이다(NE 1141b)”,

2) 이 연구에서 가정과교육이라 함은 중등에 국한하는 것이거나 교육과정에서 국한하는 것 아니고 가정과교육 전반을 의미한다. 문맥에 따라 가정과 상용되는 부분에서는 가정과라고 했으며, 그 내용이 초중등 교육과정상의 편제나 교과명과 관련된 때에는 가정교과로 사용하였다. 제 7차 교육과정에서 가정교과나 기술교과 등은 편제상 없으나 교과와 정체성과 같이 문맥상 필요한 경우 실과(기술가정)의 가정영역이나 기술영역 등은 적합하지 않아 쓰지 않았다.

"실천지는 행동에 관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보편적인 방면과 개별적인 방면을 포함해야 하지만, 후자에 더 치중해야 한다(NE 1141b)"를 들 수 있다. 여기서 '불변하는 것'의 뜻은 최근 가정과교육에서 논의되고 있는 '항구적 본질을 갖는 문제'에서 '항구적'의 뜻과 혼동하기 쉽다. Sophia가 다루는 것이 언제나 같은 것이라는 것은 천체와 같이 가장 고귀한 불변하는 것, 필연적인 것을 뜻하며(그림 2) 참고), 항구적이라는 것은 세대를 거듭해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본질을 가진다는 뜻하므로(Brown, 1978, 유태명, 2006) 두 개념에는 차이가 있다.

또한 위에 언급한 praxis적 행동의 개별적 것과 poiesis적 행동에서 논의한 특수한 점을 같은 개념으로 혼동하기 쉽다. 개별적인 것은 미국의 오하이오주나 오레곤주에서 개발한 실천적 추론 수업의 사례에서 제안 된 바와 같이 문제를 보편적인 것으로 보기보다는 구체적 상황에서 다루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Southers, 1996, Kister et al., 1994). 김현주(2002)가 "인간의 행위는 정해진 절차나 규칙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라기보다는 상황과 맥락, 그리고 최선을 찾는 과정을 포함한다. 한 사회의 전통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그것은 진화하고 변화한다. 그래서 실제적 지혜를 가진 사람은 윤리적인 눈으로 실제적 상황의 맥락을 보는 사람이며, 이것을 바탕으로 행동하는 사람이다."라고 한 것은 개별적인 것의 상황과 맥락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점은 이미 가정과교육에서 지향하는 실천적 추론 수업의 과정(Knippel, 1998, Martin, 1998, Kister, Laurenson & Boggs, 1994, 채정현 외, 2006)에서 잘 적용되고 있는 과정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해보면 가정과교육은 praxis에 관한 것으로서 techne와 구별하여 삶의 특수한 영역에 대한 것이기 보다는 일반적으로 잘 사는 것에 관한 것이며, sophia와 구별하여 불변하는 것보다는 보편적인 것에 관한 것이면서 개별적인 사례를 통하여 다루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아리스토텔레스의 덕론을 기초한 가정과교육을 대변하는 실천적 지혜와 기술교과를 대변하는 techne의 구별, 이론적 교과를 대변하는 sophia와의 구별을 통하여 가정과교육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정민주 외(2006)는 이론적 지식과 실제적 지식으로서의 기술교과 내용을 검토하고 이 둘이 어우러지는 교육

내용으로의 전환을 제안한 바 있고, 실과교육 학계에서 독자적인 하나의 교과로서의 실과학을 주장하기도 하는 점을 감안하면 가정과교육의 관점에서만 기술이나 실과의 정체성을 단정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개별 교과에서 뿐만 아니라 세 개의 교과가 협력적으로 교과의 정체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쟁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상기할 점은 phronesis, sophia, techne 모두 지적 덕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특성은 sophia와 같이 자체 안에 이성을 갖거나, 나머지는 이성을 나누어 갖는 덕들이기 때문에 지성적이고, 진리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실천적 지혜와 sophia 및 techne와의 구별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공통되는 지성적 특성을 고려해보면 박성호(1990)와 이경희(1987)의 주장과 같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천적 지혜를 통하여 이론과 실천, 이론적 생활과 실천적 생활의 종합을 시도했다고 볼 수 있다.

3. 실천적 지혜와 도덕적 덕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천적 지혜를 다른 지적 능력으로부터 구별하고 동시에 도덕적 덕으로부터도 구별한다. 실천적 지혜가 다른 지적 능력으로부터 구별되는 이유는 그것이 도덕적 덕과 관계하기 때문이고, 도덕적 덕과 구별되는 이유는 그것의 지적 특성 때문이다. 지적 덕들은 엄밀한 의미에 있어서 그리고 그 자체 속에 이성적 원리(logos)를 가지고 있는 영혼의 칭찬할 만한 상태이다(NE 1103a)이고, 도덕적 덕들은 영혼에 있어서 욕구적 부분의 칭찬할 만한 상태이다(NE 1102b). 이 부분은 비이성적인 것으로서 분류되지만 이성적 원리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한에 있어서 이성적 원리를 나누어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영혼의 비이성적 부분이 이성적 원리에 대하여 가지는 관계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비이성적인 부분이 이성적 원리에 의하여 어떤 의미에서 설득된다고 하는 것은 충고나 혹은 모든 꾸지람이나 권고가 효과를 나타냄을 보아서도 잘 알 수 있는 일이다(NE 1102b-1103a)." 그러나 충고 혹은 권고를 받아들이는 것은 충고 혹은 권고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성적 활동(전재원, 1993)이라고 하였다.

앞서 김현주(2002)는 실천적 지혜를 가진 사람의 특성 중 하나로 윤리적 성품을 소유하는 것을 들었다. 윤리적 성

품은 올바름을 지향하는 덕이고, 실천적 지혜는 올바름을 성취하는 덕이다. 훌륭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목적을 올바르게 세우고 그 목적에 이르는 바른 수단을 발견해야 한다. 도덕적 덕은 행동의 목적을 지시해 주는 것이고, 지적 덕은 그 목적에 도달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를 지시해 주는 것이다(전재원, 1993). 실천적 지혜가 인간적인 선에 대해 단순히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선한 행동을 행할 수 있게 하는 탁월한 성품이기 때문에 실천적 지혜를 도덕 행위의 근원으로 볼 수 있다(박성호, 1990).

지적 덕은 교육에 의해서, 도덕적 덕은 습관에서 배양된다. 그러나 습관에 의해 고착된 도덕적 덕 자체만으로는 완전하지 못하고, 실천적 지혜와의 보완적 관계 속에서 그 완전성을 회복할 수 있다(정기영, 2006). 인간 행동에는 지적 덕과 도덕적 덕이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이다. 본래 인간의 이성은 선을 지향하지만 아는 것만으로 행동에 옮겨지는 것은 보장되지 않는다. 아는 것을 거듭해서 실천해서 습관이 되어 반복해야 하는데, 이는 지적 덕이 도덕적 덕에 뿌리를 내리게 될 때 그것은 비로소 실천생활에 있어서 덕성이 되는 것이다(이경희, 1987).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phronesis 없이는 엄밀한 의미에 있어서 선한 사람이 될 수 없고 또 도덕적 덕 없이는 phronimos가 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NE 1144b)”라고 하였는데, 이 말은 phronesis와 도덕적 덕이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넓은 의미의 덕은 도덕적 덕과 지적 덕의 결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전재원, 1993, 3).

아는 것은 곧 행동으로 이끈다는 소크라테스의 생각은 비약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주목할 것은 도덕적 행동은 알지 못하고도 행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전재원, 1993). 어떤 사람이 옳은 일을 하는 것이 곧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법이 명하기 때문에, 혹은 생각이 없으면서, 혹은 어떤 이유로 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현주(2002)가 언급한 바와 같이 도덕적 행동을 우연히 행할 수도 있는데 그건 잘 숙고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러나 행하지 않으면 덕을 얻을 수 없고, 실천적 지혜가 praxis로 이끌 때 도덕적 덕이 갖추어져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도덕적 덕은 선택에 관계된 성품의 상태요, 선택이란 숙

고한 욕구이므로 좋은 선택을 하려면 이치도 옳아야 하거나 욕구도 바른 것이어야 한다(NE 1139a).” 즉, 옳은 이치가 주장하는 것을 욕구가 추구해야 가능하다(김기수, 1997). 여기서 옳은 이치와 관계되는 덕이 바로 실천적 지혜이다. 즉 인간이 올바른 욕구에 의해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동의 기준과 그런 행동을 위한 지침을 확립하는 지적 능력이 실천적 지혜이다(박성호, 1990).

이로부터 실천교과로서 가정과교육에서 시사점을 두 가지 측면에서 얻을 수 있다. 첫째가 아는 것, 행동하는 것, 잘 행동하는 것에 대한 관계이다. 이 점은 도덕적 덕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앞서 논의한 sophia 및 techne와의 관계에 대한 논의와도 관계가 있다. 가정과교육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와 같이 단편적 지식이나 이론의 주입 혹은 전달과 같이 단지 아는 것에 치중하던가(유태명, 1992), 실습이나 수행평가로 정당화된 단지 만드는 것에 그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만약 가정교과를 sophia로 본다면 단순한 이론의 주입이나 전달로서 그쳐서는 안 되며 철학자나 과학자가 사색하고 탐구하는 방법을 사용해야만 진정한 의미의 sophia로 볼 수 있다. 이는 Bruner(1964)가 주장한 지식의 구조에 나타난 방법과 유사한데 단순한 지식의 전달은 sophia적 활동이 아니라 이홍우(2006)가 비판한 중간 지식의 전달에 그치는 것이다. 또한 만약 가정교과를 techne로 본다면 단순한 실습보다는 올바른 이치에 근거한 제작활동이어야 할 것이다. 물론 가정교과에는 이론적인 부분과 기술적인 부분이 포함되지만 sophia나 techne가 중점이 되는 가정교과는 우리가 지향하는 실천교과의 성격을 대변한다고 보기 힘들다. 그보다는 실제 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잘 행동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모든 요소에서 실천적 지혜가 잘 발휘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점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즉, praxis를 실현하게 해주는 실천교과가 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우리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점은 같은 교육 내용을 다루는 다른 과목들과의 연계성을 어떻게 교과 본질에 부합되게 잘 다룰 수 있을지 모색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실천적 지혜가 습관과 교육을 통한 도덕적 덕과 지적 덕의 불가분의 관계라고 할 때 도덕교과와 가정교과의 경우 습관과 교육 중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의 차이는 존재할 것이다. 특히 도덕적 덕은 중용에 이

르는 데에 실천적 지혜가 필요하고, 실천적 지혜를 이루는 데에는 도덕적으로 선한 것이 바람직한데 교육현장에서 교과별의 정체성을 살리면서도 서로 협조적인 관계에서 개선 방법을 구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덕교과이외에도 다른 교과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협조가 요구된다.

IV. 결론 및 제언

우리나라 교육과정 역사상 가정과교육은 실업과 관련된 교과명이나 교과군에 속하면서, 교과의 성격은 실천교과라고 명시하면서 실업과 실천을 혼용하면서 그 정체성이 모호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더욱이 가정과교육 내에서나 밖에서 실천의 개념은 매우 다양한 의미로 쓰여져 왔다. 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교육과정에서도 실천비판적 패러다임이나 실천적 문제 중심 교육과정과 같은 새로운 개념이 소개되면서 이에 대한 이해도 요청되었다(유태명, 2006, 이수희, 2006). 이러한 여러 상황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요구되는 것은 실천 교과로서 가정과교육에서 지향해야 하는 실천 개념은 어떠한가를 파악하고 이해를 공유하는 것이라 판단하였다. 이 주제는 사상사적 고찰이 요구되며, 이는 역사적으로 여러 철학자나 정치, 사회, 경제, 가정학자들의 실천과 관련된 개념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의 시론으로서 이 연구는 가정과교육에서 지향하는 실천 개념은 어떠한가를 아리스토텔레스의 덕론 중에서 덕의 분류에 기초하여 실천적 지혜의 위치를 파악하고 다른 덕과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천의 분야를 학적 논의의 범주로 가져온 것에서 그 가치를 평가받고 있다. 실천적 지혜는 praxis와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는 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실천교과라고 명시되어 있는 가정과교육의 실천적 본질을 이해하는 데에 핵심적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덕론에서 인간의 영혼을 이성적 부분과 비이성적 부분으로 나누고 이성적 부분을 다시 인식적 부분과 사랑적 부분으로 나누었다. 영혼의 비이성적 부분을 식물적 부분과 욕구적 부분으로 나누었다. 인식적 부분에 해당하는 덕을 지적 덕, 욕구적 부분에 해당하는 덕을 도덕적 덕이라 하였다. 실천적 지혜는 인간 정신의 이성적 부분

중 사랑적 부분에 해당하는 지적 덕 중에 하나이다. 이와 같은 분류에 기초할 때 실천적 지혜는 좁은 의미에서 praxis와 관계하는 덕으로 sophia와 구별되며, techne와도 구별된다. 또한 실천적 지혜는 도덕적 덕과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올바른 욕구와 logos를 따라 선택한 행동에 이르게 한다.

이 연구의 논의를 기초로 가정과교육에서 지향하는 praxis와 실천적 지혜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가정과교육은 실천적 지혜를 가진 사람을 교육할 사명이 있으며, 이를 위해 가정과교육에서 지향하는 실천적 지혜를 가진 사람의 구체적 특성을 제안하여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가정과교육에서 지향하는 praxis의 의미를 잠정적으로 '개인 및 가정생활에서의 도덕적으로 실천하는 행동, 개인 및 가정생활에서 숙고를 통해 선을 구체화 또는 실현하는 행동, 혹은 개인 및 가정생활에서 최선의 선을 추구하는 좋은 삶'으로 보았다. 실천교과로서의 가정과교육에서 실천적 지혜를 가진 사람의 의미는 '개인 및 가정생활에서 일어나는 실천적 문제의 구체적 상황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모두를 위해 최고의 선을 구체화하는 행동(praxis)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때 개인 및 가정생활에서 최고의 선인 모두의 안녕이란 무엇인가와 이것을 위한 최선의 행동은 무엇인가에 대한 참된 파악을 할 수 있으며, 올바른 이치에 따르고 심사숙고-선택결정-실천의 과정을 통하여 praxis에 이를 수 있는, 즉 잘 행동하고 잘 사는 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았다.

둘째, 가정과교육은 실천 개념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여야 하는가의 과제와 실과교육과 기술과교육과의 관련성은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옳은지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선, 가정과교육에서 교과의 정체성을 기술교과와 구별되는 학문적 배경에서 찾는다면 실천적 지혜와 techne를 구별하는 입장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하나의 교과로 편제되어 있는 실과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넓은 의미의 실천적 지혜가 사랑적 부분 전체의 덕으로 본 것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나 그 타당성이 의문시 된다. 실천적 지혜와 techne를 구별할 경우 실과의 정체성을 찾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다. 이와 같이 실천적 지혜와 techne의 관계 측면에서 살펴보면 둘이 하나이기보다는 구별되는 특성 때문에 가정교과와

기술교과는 편제상 독립교과로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실천적 지혜와 sophia의 관계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 'sophia가 다루는 것은 언제나 같은 것이고, 실천적 지혜가 다루는 것은 수시로 변하는 것이며, 실천적 지혜는 보편적인 것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것들도 알아야 하는 것'이므로 변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 보다는 보편적이며 개별적, 구체적 상황에 관한 것이므로 sophia로서의 가정과교육은 적합하지 않다. 그러나 실천적 지혜를 통해 이론과 실천을 통합할 수 있음을 보았다.

셋째, 실천적 지혜는 도덕적 덕과 불가분리의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아는 것과 잘 행동하는 것에 대한 교과교육에서의 협조가 요구된다. 도덕적 덕은 습관에서부터 실천적 지혜는 교육으로부터 생기는데 습관이 실천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실천을 위해서는 선한 성품이 요구되기 때문에 실천적 지혜와 도덕적 덕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다. 예를 들어, 아는 것이 곧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은 아니며, 한 번의 행동이 다음의 행동에 반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 품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교육과 실천과 경험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과교육의 연계를 통하여 덕이 실현될 수 있는 praxis를 영위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할 것이다. 아는 것이 행동하는 것으로, 행동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잘 행동하는 것으로 가게 해주는 덕이 실천적 지혜이므로, 아는 것으로 대변되는 지식의 전달이나, 기술적인 실습에 그치기보다는 실천교과로서의 가정과교육을 통하여 실천적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교육할 사명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제시된 덕의 분류에 기초하여 실천적 지혜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러므로 아리스토텔레스의 다른 저술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전 및 이후의 철학자와의 연계하여 논의하지 못한 연구의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철학 전공자가 아닌 가정과교육 전공자로서 논의한 부분에 대해 그 논의의 깊이에 서나 해석의 정통성 면에서 비평의 여지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피상적으로 인용해왔던 아리스토텔레스의 덕론에 대한 이해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에 다음과 같은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선 이 연구에서 다루지 못하였던 주제로 구체적으로 praxis와의 관계에서 실천적 지혜의 역할이나 작용을 심사숙고나 선택, 결정의 과정 측면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가정과교육에서 실천 개념의 이해에 핵심이 되는 praxis와 phronesis의 두 개념에 대해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 기술교과를 techne로 단순하게 가정하고 논하였던 제한 점을 고려할 때 정민주 외(2006)와 같이 기술교과의 praxis적 측면을 논의 한 바를 시작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천적 지혜와 techne와의 관계 및 차별성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하여 가정과교육에서 뿐만 아니라 기술교과와 실과교과와 연계하여 정체성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 전공자들과의 협력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가정과교육 전공자들이 아리스토텔레스를 시론으로 중세 및 근현대 철학 및 관련 학문에서의 실천 개념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가정과교육에서의 실천 개념을 정립해 나갈 수 있기를 학계에 요청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강일영(2004). 덕윤리와 의무윤리의 통합교육론-덕성과 자율성의 조화를 위한 교육적 대안 모색-.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교육부(1994). 중학교 가정과 교육과정 해설.
- 교육부(1997). 제 7차 기술가정 교육과정.
- 교육인적자원부(2001). 초·중·고등학교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 기준(1946-1997).
- 김경미(1993). 우리나라 가정학 본질 규명에 관련된 근본 개념들에 관한 분석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기수(1997).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천적 지혜와 교육의 실제. 교육철학, 제 17집, 9-27. 한국교육학회 교육철학연구회.
- 김남희(2004). 도덕적 프락시스에 있어서 덕과 서사의 위상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달희(2001). Aristoteles의 덕론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대오(2004).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에서 실천지의 역할. 철학연구, 제 65집 55-75. 철학연구회.
- 김봉미(1991). Gadamer 철학적 해석학에서 실천의 의미.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선권(2001).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영희(1996). 비판과학으로서의 가정학 개념의 재정립과 가정교육의 방향. 대한가정학회지, 34(6), 343-352.
- 김태길(1998). 윤리학. 박영사.
- 김태오(1991). Habermas의 Praxis 이론과 그 교육실천적 논의. 교육철학, 제 9집, 151-168. 한국교육철학회.
- 김현주(2002). 가르치는 일의 의미: 아리스토텔레스의 '프락시스'를 바탕으로 한 가르침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철학적 연구. 강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문성희(1999). 식생활 단원에 적용한 실천적 추론 수업이 여고생의 도덕성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문수재, 유영주, 이은영, 윤정숙, 문숙재(1993). 가정학의 새로운 접근. 수화사.
- 박미경(2006). 가정과교육의 미래 발전 전략 탐색: 정체성과 입파 위먼트 및 비전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박성호(1990). Aristoteles의 윤리적 덕에 있어서 실천지의 역할. 철학논집, 제 6집, 131-157. 영남대학교.
- 박승찬(2002). 아리스토텔레스 학문체계에 대한 중세의 비판적 수용. -토마스 아퀴나스의 주해서를 중심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보고서.
- 박전규(1985).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천적 지혜. 서광사.
- 반성택(1997). 아리스토텔레스에서의 실천철학의 정초. 인문과학연구, 제 3집, 193-215. 서경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변현진(1999). 실천적 추론 가정과 수업이 비판적 사고력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손병석(2000).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 실천지의 적용단계. 철학연구, 제 48권, 21-43. 철학연구회.
- 신연희(2000). 아리스토텔레스의 프로네시스 개념.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오진희, 강두호(1999). 아리스토텔레스의 덕론에 의거한 도덕과 수업지도 방안. 교육논집, 제 19권, 1-20. 전북대학교.
- 유태명(1992). 가정과교육 방향의 재조명을 위한 가정학 철학 정립의 중대성. 한국가정과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43-59.
- 유태명(1996). 새로운 가정학 패러다임 모색을 위한 기존 패러다임의 비판적 검토. 대한가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25.
- 유태명(2003). 가정과 교육과정 구성을 위한 가정과의 성격, 내용 구조, 가정과교육을 통하여 갖추어야 할 소양에 대한 기초연구(I): 델파이 조사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1(10), 149-171.
- 유태명(2006). 실천적 문제 중심 교육과정의 이해. 한국가정과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9-28.
- 유태명, 장혜경, 김향아, 이효순(2004). 실천적 가정과 수업 I. 신광출판사.
- 윤숙현(1995). 아리스토텔레스의 가정관 연구. 호남대학교 학술논문집, 16(2), 235-246.
- 윤희조(2001).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에 대한 정의적 해석: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경희(1987).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천적 지혜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학술논문집, 8(1), 141-160.
- 이기영(1997). 인간과 생활환경에 관한 가정학적 접근. 대한가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31-50.
- 이연숙 외(2005).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가정교과의 대안적 모형.

- 한국가정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77-93.
- 이수영(1971).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에 있어서 덕과 행위의 문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수희(2006). 실천문제 중심의 가정생활문화교육. 한국가정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05-129.
- 이재근(2000). 아리스토텔레스와 토마스 아퀴나스의 덕론.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춘식, 최유현, 유태명(2001). 실과(기술가정) 교육목표 및 내용 체계 연구 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홍우(2006). 지식의 구조와 교과. 교육과학사.
- 이학주(1987). 실천의 의미와 교육. 논문집, 21(1), 343-365. 인천 교육대학교.
- 이학주(1989). 실천적 행위의 교육적 의미: 마르크스와 듀이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전재원(1993).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 Phronesis와 Praxis. 경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전현상(2005). "합"[praxis]과 "만듦"[poiesis]. 서양고전학연구, 제 23집, 95-124. 한국서양고전학회.
- 정기영(2006).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의 프로네시스에 대한 고찰. 경북대 석사학위 논문.
- 정문선(2003). 실천적 이성의 교육적 의미.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정연주, 이상봉(2006). 기술교과 내용을 보는 두 가지 관점: 이론적 지식과 실제적 지식. 한국기술교육학회지, 6(1), 73-87.
- 정성연(2002). 아리스토텔레스의 도덕교육론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채정현(1996). 미국 오하이오주의 실천적 문제 중심 모형을 적용한 '일과 가족생활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의 관심도 대한 가정학회지, 34(4), 327-343.
- 채정현(1999). 실천적 추론 가정과 수업과 다른 요인이 한국 여고생들의 의사결정능력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7(3), 43-61.
- 채정현, 유태명, 박미정, 이지연(2003). 실천적 추론 가정과 수업이 중학생의 도덕성에 미치는 효과. 대한가정학회지, 41(12), 53-68.
- 최명선(1994). 대화의 교육적 의미: Gadamer의 해석학적 지식론의 경우.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편상범(1999).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에서 실천적 인식의 문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하기락(역)(1998). 윤리학. 형설출판사.
- 한국직업능력개발원(1998). 직업교육훈련 100년사.
- 황해덕(1996). Aristoteles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나타난 덕론의 교육적 의미.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National Association of State Administrators for family and Consumer Science(1998). *National Standards for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 AHEA and et al.(1993). Positioning the profession for the 21st century. Scottsdale Meeting. Scottsdale, AZ.
- Arent, H(1959). *The human condition*. New York: Doubleday Anchor.
- Aristotle. *Nicomachean Ethics*. 최명관(역)(1984). 니코마코스 윤리학. 서광사.
- Aristotle. *The Nicomachean Ethics*. Translated by. W.D, Ross(1980).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Aristotle. *Metaphysics. The works of Aristotle*, Vol. 8, Translated by. W.D, Ross(1966).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aldwin, E.E.(1991). The home economics movement: A new integrative paradigm. *Journal of Home Economics*, 83(4), 42-49.
- Ball, T(1977) *Political theory and praxis: New perspective*.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Barns, J.(1982). *Aristotl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rown, M.M.(1978). *A conceptual scheme and decision rules for the selection and organization of home economics curriculum content*. Madison, WI: Wisconsin Department of Public Instruction.
- Brown, M.M.(1986). Home economics: A practical or technical science? In Laster, J.F & Doner, R.(Ed). *Vocational home economics curriculum: State of the field*. Teacher Education Section, Americ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 Brown, M.M.(1993). *Philosophical studies of home economics in the United States*. East Lansing, MI: Michigan State University.

- Brown, M.M. & Baldwin, E.E.(1995). *The concept of theory in home economics*. East Lansing, MI: Kappa Omicron Nu, Inc.
- Bruner, J.S.(1960). *The process of education*. Boston,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Carr, W.(1995). *For Education*.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 East, M.(1980). *Home economics, Past, present, and future*. Boston, MA: Allyn and Bacon.
- Granovsky, N.L.(1997). New paradigm of home economics for the 21st century: Challenges and perspectives. Keynote speech at the 9th conference of Asian regional Association for Home Economics.
- Habermas, J.(1971). *Knowledge and human interests*. Translated by J. Shapiro. Boston, MA: Beacon Press.
- Habermas, J.(1973). *Theory and practice*. Translated by J. Viertel. Boston, MA: Beacon Press.
- Habermas, J.(1979). *Communication and evolution of society*. Translated by T. McCarthy. Boston, MA: Beacon Press.
- Habermas, J.(1984). *The theory and communicative action. Reason and the rationalization of society*. Vol. 1. Translated by T. McCarthy. Boston, MA: Beacon Press.
- Hartmann, N.(1932). *Ethics*, Vol. 2, Translated by Coit, S. London: George Allen & Urwin.
- Johnson, J. & Fedge, C.G.(ed)(1999).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curriculum: Toward a critical science approach*. AAFCS.
- Kister, J., Laurenson, S. & Boggs, H.(1994). *Nutrition and wellness resource guide*. Ohio Department of Education.
- Krippel, D.(1998). Practical reasoning in the family context. In Thomas, R.G. & Laster, J.F.(ed)(1998). *Inquiry into thinking*. American Association of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 Laster, J.F. & Thomas, R.G.(ed)(1997). *Thinking for ethical action in families and communities*. AAFCS.
- Lobkowitz, N.(1967). *Theory and practice: History of a concept from Aristotle to Marx*. Notre Dame, Indiana: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 MacIntyre, A.(1984) *After Virtue*.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 Martin, J.L.(1998). Practical reasoning instruction in the secondary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education. In Thomas, R.G. & Laster, J.F.(ed)(1998). *Inquiry into thinking*. American Association of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 Peters, R.S.(1967). *Ethics and education*. Scott, Foresman and Company.
- Rettig, K.R.(1998). Families as contexts for thinking. In Thomas, R.G. & Laster, J.F.(ed)(1998). *Inquiry into thinking*. American Association of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 Ross, W.D.(1949). *Aristotle*. London: Methuen & Co., Ltd.
- Rowe, C.J.(1971). The Eudemian and Nichomachean Ethics. Proceedings of the Cambridge Philological Society.
- Southers, C. (1996). *Balancing work, family, and community life*. Oregon Department of Education.
- Thomas, R.G. & Laster, J.F.(ed)(1998). *Inquiry into thinking*. American Association of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 Vaines, E.(1993). An empowering orientation for home economics. *Home Economics FORUM*, 21-26. Spring.
- Vincenti, V.(1981). History of the philosophy of home economics. Ph.D Dissertation.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국문요약〉

이 연구는 가정과교육에서 지향하는 실천 개념은 어떠한지를 아리스토텔레스의 덕론에서 덕의 분류에서 실천적 지혜(phronesis)의 위치를 파악하고 다른 덕과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실천적 지혜는 praxis로 이끄는 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실천교과라고 명시되어 있는 가정과교육의 실천적 본질을 이해하는 데에 핵심적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영혼을 이성적 부분과 비이성적 부분으로 나누고 이성적 부분을 다시 인식적 부분과 사랑적 부분으로 나누었다. 영혼의 비이성적 부분을 식물적 부분과 욕구적 부분으로 나누었다. 인식적 부분에 해당하는 덕을 지적 덕, 욕구적 부분에 해당하는 덕을 도덕적 덕이라 하였다. 실천적 지혜는 인간 정신의 이성적 부분 중 사랑적 부분에 해당하는 지적 덕 중에 하나이다. 이와 같은 분류에 기초할 때 실천적 지혜는 좁은 의미에서 praxis와 관계하는 덕으로 sophia와 구별되며, techne와도 구별된다. 넓은 의미에서 실천적 지혜는 techne를 포함하는 사랑적 부분의 덕이다. 실천적 지혜는 도덕적 덕과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올바른 욕구와 logos를 따라 선택한 행동에 이르게 한다. 이 연구의 논의를 기초로 가정과교육은 실천 개념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여야 하는가의 과제와 실과와 기술과의 관련성은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옳은지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가정과교육에서 지향하는 praxis의 의미를 잠정적으로 ‘도덕적으로 실천하는 행동, 선을 구체화 또는 실현하는 행동, 혹은 최선의 선을 추구하는 좋은 삶’으로 보았다. 실천교과로서의 가정과교육에서 실천적 지혜를 가진 사람의 의미는 ‘개인 및 가정생활에서 일어나는 실천적 문제의 구체적 상황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모두를 위해 최고의 선을 구체화하는 행동(praxis)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실천적 지혜와 다른 덕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실천적 지혜를 통해 이론과 실천을 통합할 수 있으며, 도덕적 덕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아는 것이 행동하는 것으로, 행동하는 것이 잘 행동하는 것으로 가게 해주는 덕이 실천적 지혜이므로, 실천교과로서의 가정과교육을 통하여 실천적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교육할 사명을 다해야 할 것이다.

■논문접수일자: 2006년 11월 11일, 논문심사일자: 2006년 11월 16일, 게재확정일자: 2007년 4월 2일